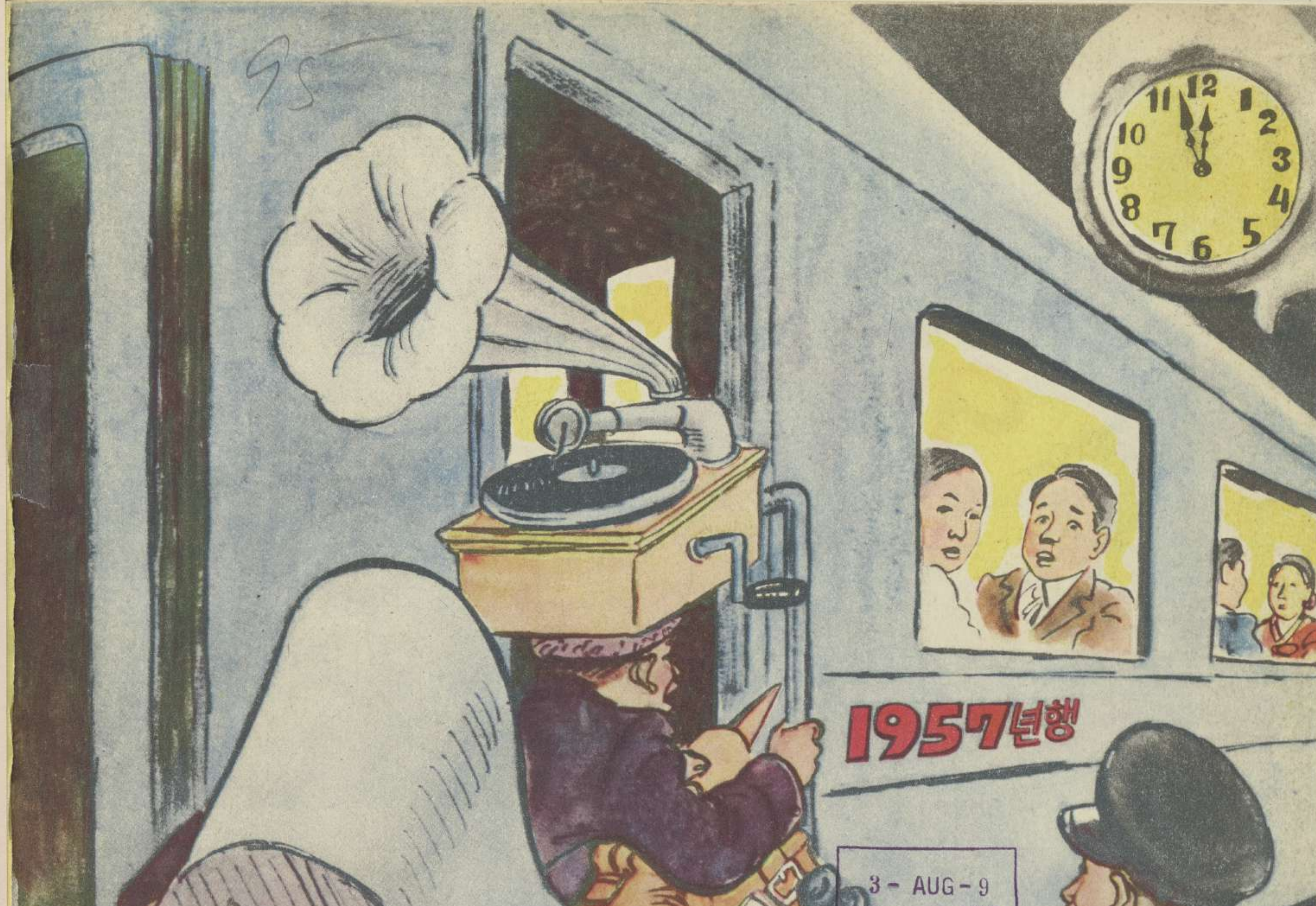


3 - AUG - 9
Copy ______ 1960

딱한 량반이로군! 거추장스러운 짐은 그만 벗어 버리시우

박승히

12월호 1956년(73)

활살

우리는 이번 도, 시, 군 (구역)리, 읍, (로동자구)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승리하였다!

송룡남 그림

유 항 림

합법적 불법행위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이 준비되던 기간에 『외무부』의 어느 고관 한명이 술자리에서 미국 대사관 관원의 비위를 거슬려 놓은 일이 있었다。

『외무부』의 고관이 말하기를 『조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은 넣지 않는—편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인신을 『한국』은 무제한으로 보호하며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 하드래도 미국 령사관이 처벌할려면하고 말려면 말 수 있는 권한 즉 치외법권에 대한 구절은 빼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던 것이다。 그는 서두를 이렇게 꺼내놓고 그 리유를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 관원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노발대발했다。

『우리 미국은 당신네들과 그리고 특히는 당신의 생명을 무조건 보호하고 있소。 정치적 생명도 생리적 생명도— 우리 미국 없으면 당신네들의 생명은 하루라도 없을 것이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 미국인의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소。 이건 배신이요』。

『아닙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 주십쇼。 우리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미국인의 생명과 모든 자유를 보장해 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려구 합니다』

『그러면 「조약」에서 그걸 밝히는 것은 왜 반대하오』

『그런게 아니라 「조약」으로 밝힌것이 없는 지금에도 미국인이 조선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거나 자동차로 깔아 죽이거나 비행기에서 기총소사해서 죽이거나 폭탄을 떨궈 죽이거나 몽둥이로 때려 죽이거나 칼로 찔러 죽이거나를 막론하고 범인이라 해서 처벌한 일이 없는 것은 당신도 잘 아는바가 아닙니까? 「조약」이 없이도 그대로 실행했으면 그만인데 지금 새삼스러이 그걸 전세계에 광포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오, 노오—』

『전번만 해도 자동차 엔진을 사 준다고 거짓말을 해서 조선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사기해 먹은 미국 상인을 우리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인이 조선 부녀자를 롱욕하는 일이 매일같이 있었으나 우리는 모른척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약」으로 미국인에게 치외 법권을 준다고 한다면 공연한 시비꺼리만 생기겠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립장이 좀 곤난해질 게구 우리 립장이자 곧 미국 립장이 아닙니까?!』

『노오, 노오。 우리 미국 사람은 법을 존중히 여기오。 지금까지도 우리 미국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자유가 보장됐다는 것은 인정하오。 그러나 그것들이 법으로 보장되지 못했소。 우리는 당신네들의 묵인뿐만아니라 법으로 보장될 것을 요구하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우리는 아직 충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소』

이상과 같은 리유에 의하여 『조약』에는 상기 조항이 기입되였고 그리하여 남조선에서 미국인의 모든 불법적 악행들은 합법적으로 보장하기로 약속되였다。

단 하나 다른건

리 승만이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꿈에 한 사내가 나타나더니 대뜸 그를 꾸짖었다。

『승만아 이 고얀놈 같으니 너까지도 내게 밥 한술 술 한잔 이렇다 하는 일이 없으니 이런 고얀 것이 어디 있느냐?!』

『대관절 너는 누구냐?』

『하 이놈 봐라! 만사에 내 본을 따면서 그래 나더러 모른척 하려 드느냐?』

『그렇다면 리 완용공 아니오니까?』

『인제야 알아 봤구나! 내가 일찌기 자기 나라를 팔고 자기 백성들을 일본의 노예로 파는 종문서인 을사조약에 도장을 찍었던 본을 따서 너는 지금 또 다시 미국인들에게 자기 나라를 팔고 자기 백성을 노예로 파는 종문서를 만들고도 나를 판판 남인것 같이 보는구나! 온 천하가 다 나를 만고역적이라 하여 침을 배앗더라 마는 너만은 내게 술 한잔 떠놓고 제사라도 드려야 할 처지 아니냐?』

『제 경우는 리 완용공의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놈아 아무도 속지 않을 거짓말 말아, 네놈이 본시 뱃사공 배 둘러 대듯 거짓말이 판장이더라 만은 너와 나 단 둘이 있는데써까지 거짓말을 할 게야 있느냐!』

『그런게 아니라, 선배 어른께서는 제 나라 제 백성을 팔아 먹었지만 난 그렇지 않습니다』

『애야, 나두 그런 거짓말쯤 할줄 몰라서 만고 역적이란 칭호를 받은줄 아느냐?』

『나는 삼십년 전에 벌써 미국 사람이 되였고 또 나는 조선 사람이 아니라고 성명까지 했으니까 조선을 팔아 먹는 점 선배 어른과 매한가지지만 나는 결코 제 나라 제백성을 팔아 먹는 셈은 아닙니다』

『평등, 공평, 호혜』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에 기재된 약간의 구절을 알기 쉬운 말로 풀어서 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로서 표현할 수 있다。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나 『한국』에서 만든 쪼꼬레트나 『한국』에서 만든 사탕을 미국에서 얼마든지 팔수 있으며 또 관세와 세금도 받으나 마나 할테다。그대신 평등한 조건에 의해서 미국제 자동차나 쪼꼬레트나 사탕을 『한국』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팔 수 있으며 또 관세와 세금을 받으나 마나 하게 해야 한다。

『한국』의 자본으로서 미국 자본보다 더 큰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여 미국 억만 장자들을 압도하여 그들을 파산시켜 가면서 미국의 지하 자원을 마음대로 파오며 미국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다。그대신 공평한 조건에 의해서 미국 자본이 『한국』에서 민족산업은 마음대로 파산시키면서 『한국』의 지하 자원을 마음대로 파가고 『한국』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다。

『한국』 상선들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어느 항구에든지 마음대로 들릴 수 있으며 그때는 미국은 『한국』상선들에 대해서 모든 편의와 갖은 봉사를 다하겠다。 그대신 호혜적인 조건에 의해서 미국 상선들은 『한국』 포구 어디로나 무상출입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한국』은 그들에게 모든 편의와 갖은 봉사를 다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 어느 편의든지 『평등 공평 호혜』의 조건으로 산업이 먼저 발달했으며 우수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락후한 상대방의 산업의 발달을 압살하며 공장들을 페쇄시킬 수 있는 권한을가진다。

신 흥 순

갑 요즘 남조선엔 대홍수가 났다네그려。
을 에끼 이 사람 이 치운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면 혹 몰라도 홍수라니?
갑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아니라 주간운동 홍수란 말일세。
을 아니 주간운동이라니? 대낮에 체조를 하는게 주간 운동인가?
갑 그런게 아니라 리승만 괴뢰정부에서는 매사가 뜻대로 잘 안되니까 무슨 주간이요 무슨 운동이요 해가지고 인민들을 내 모는데 그 주간 운동이란것이 꼬릴 물구 나오다 못해 인제는 무데기루 쏟아져 나오는 판이란 말이야。
을 아하 도대체 무슨 놈의 주간이 그렇게 많단 말인가?
갑 우선 대충 생각나는 것만 치드라도 전시생활체제 확립주간이요 정신무장 강화주간, 내핍생활 강조주간, 6.25 설욕주간 판자'집 철거주간, 풍기문란 단속주간 탈주병 체포주간 자동차 속도 제한주간……
을 아니 자동차 속도 제한주간이라니?
갑 자동차는 천천히 댕기라는거야。
을 아니 자동차란거야 원래 빨리 댕기자구 마련된게 아닌가?
갑 그렇지 헌데 자동차가 빨리 달아나면 취체허기 힘든다는 거지。
을 취체?
갑 차두 사바사바가 많은 세상이라 취체 헌답시고 경관들이 찬물 보잔 속심이란 말이야。
을 원 저런놈의……
갑 그리구 세금을 잘 안내니 체납세금 완납주간이 나왔구 징병을 반대하니까 깜장 강아지 무상 출입주간이 나왔거든。
을 아니 깜장강아지 무상 출입주간이라니?
갑 징병기피자 단속주간을 항간에서 그렇게 말허구 있는데 경관놈들이 징병 기피자를 취체헙네허구 아무집에나 강아지 새끼처럼 울타리 구멍으루 막 드나든단 말이야。
을 아하 그래서 강아지 무상 출입주간이로구먼!
갑 그렇지 그리구 상부존엄심 강조주간。
을 아니 그건 또 뭔가?상부존엄심 강조주간이라니?
갑 이전 국군에서 허는전데 하부 병사들이 상부 장교 알길 개떡같이 여기거든。
을 아 그럴수밖에 있나! 걸핏 허면 기압으루 때리구 차구 못살게 구니 상부가 아니라 천천의 원쑤란 말야。
갑 그래서 상부 존엄심 강조주간까지 나왔다네。
을 나중엔 별놈의 주간 다 보겠네。
갑 그뿐인가? 보급품 분실 방지주간
을 옳지 군대들이 보급품을 막 내다 팔아 먹으니까。
갑 그리구 생활 간소화주간이니 체력향상주간이니 교육주간이니 방화주간이니 뭐 이루 다 헤일수 없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도 아주 웃으운 주간이 하나 있단 말야。
을 그건 또 무슨 주간이야?
갑 주간을 강조하는 주간 강조주간。
을 아니 주간을 강조하는 주간 강조주간이라니?
갑 주간을 설정해 놓았는데도 그 주간 운동이 시시해지니까 그 주간 운동을 더욱 강조하는 강조 주간이란 말이야。
을 아하 그러다간 주간을 강조하는 강조주간을 더욱 강조하는 강조주간의 강조주간이 또 나올게 아니겠나?
갑 아무렴 그러니까 강조주간을 강조하는 강조주간이 잘 안되면 그 다음엔 또 강조주간을 강조하는 강조주간의 강조 주간이 나올판이지。

아버지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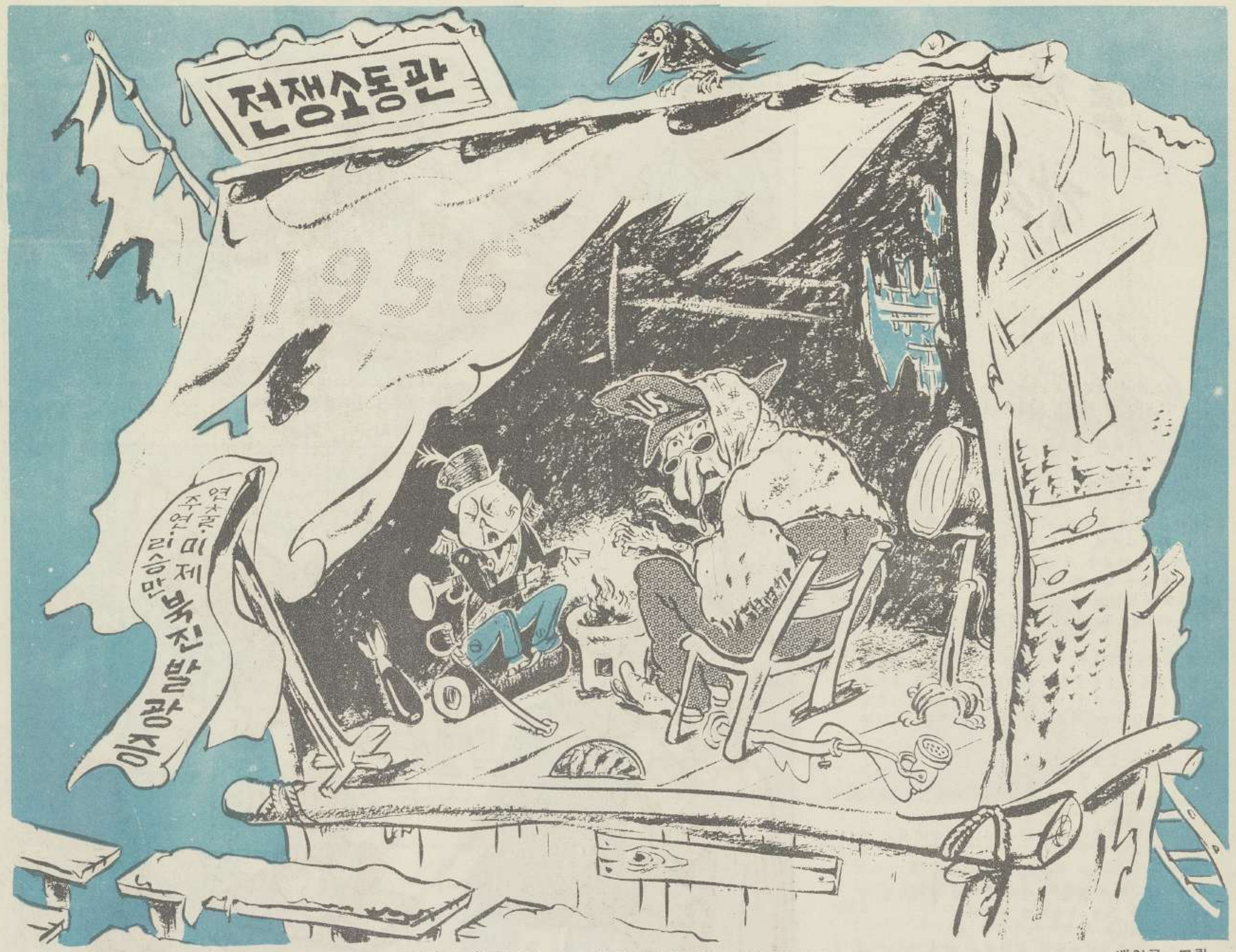
야— 순길아! 우리 아버진 선물
많이 사가지구 온단다

순길—우리 아버진 선물 얼마나 사가지구
오노라고 아직 안올까?

—엄마! 아버지 돌아왔어

리영춘 그림

인끼 없는 괴뢰극



미제—래년에도 또 흥행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표가 안팔려서야……

리 승만—그러기에 말입니다 이러다간 오늘 밤 새우기두 힘들겠는데요

백인균 그림

최 재 흥

유·엔 제11차 총회가 의정문제 토의를 시작 했을때였다。

인도 대표는 유·엔에서의 중국의 대표권 문제를 이번 총회가 토의해야 한다는 것을 견결히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가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는 아세아에서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것과 관련되여있으며 이것은 6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위대한 나라가 실지 다년간 유·엔에 대표를 보내지 못한 극히 비정상적인 사태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미국 대표는 무조건으로 인도 대표의 제안을 무시하고 그 제안을 삭제할 것과 유·엔에서의 중국의 대표권 문제는 그 어떤 형태로서도 금번 회의에서 토의하지 않을 것을 제의하고 불법하게도 유·엔의 규칙을 짓밟았다。

미국 대표는 선차적으로 표결에 붙여야 할 인도 대표의 제안을 깔아 뭉개고 자기의 제안만을 표결에 붙이고 자기의 졸개들인 거수기를 발동하여 억지로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그날 미국 대표는 휴계실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신문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기자 1 『각하……각하께선 인도 대표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미국 대표『오—인도 대표! 그사람은 공산권나라의 지시를 받는 허수아비요!』

이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뒤에 있던 어느 익살맞은 기자가 질문했다。

기자 2 『아까 회의 석상에서 인도 대표의 반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대표 『무슨 반박 말인가?』

기자 2 『각하께선 여길 잘못 오셨다구 하든것 같던데요』

미국대표『뭐라구?』

기자 2 『아마 정신에 이상이 생기신 모양같은데 정신병원으루 가셨서야 할것을 그랬나 봅니다…』

기자들의 웃음소리가 홍성거렸다。

미국대표 『……내—내가 정신병자란 말인가?』

기자 2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엔의 원칙두 모르구 총회에 출두할 수도 없는 일이구 또 그보담 사람까지 잘 못 알아보시니깐 하는 말입니다』

미국대표 『내가 누굴 못알아 봤단 말인가?』

미국 대표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머리깔을 추겨들며 소리쳤다。

기자 2 『우리들은 똑똑히 보구 듣구 다 알수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엔 인도 대표는 중국의 대표권 문제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든데요……그런데 각하께선 인도 대표를 마치 미국이 상투적으루 사용하구 있는 그런 허수아비 기구의 대표루 보시구 계시니깐 이건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군 볼 수 없을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대표 『……나……나를 모욕하는가? 나는 대—…대 아메리카의……』

미국대표는 그야말로 노기 충천하였다。머리털은 곤두 서고 눈알은 충혈이 되여 뒤집혀지고 육신은 와들와들 떨었다

옆에서 보고 있든 기자 1이 자기 동료에게 말했다。

기자 1 『여보게 야단 났어 정말 미쳤나보비—어서 자동차에 실어서 정신 병원으루 데리구 가야 할게 아니야?』

동료는 껄껄 웃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동료 『괜찮어! 저러다 맥이 빠지면 제풀에 거품을 물구 늘어 질걸세!

말하자면 저꼴이 오늘의 아메리카의 축도야! 하……』

리 운 봉

△ 『교 실』

충남 공주군 『주봉 국민학교』 학생들은 천막 『교실』로 옮겨왔다。 바람이 불어올 때면 천막이 펄럭거렸고 눈보라가 사정없이 학생들을 담새웠다。

살이 삐죽삐죽 내보이는 누더기를 걸친 아이들은 몸을 옹쿠리고 우들우들 떨기만 할 뿐 선생의 말은 귀, 등으로 지나갔다。

그때 이곳으로 군수가 찾아왔다。

『너희들은 왜 선생이 강의하는 걸 쓰지 않아?』

한 학생이 대답했다。

『손이 곱아 못쓰겠습니다』

군수의 얼굴은 갑자기 노기가 서렸다。

『손이 곱아 못쓰겠다구? 너희들은 로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못봐?! 천막에서 공부하는 것도 미국에서 원조해준 덕택인줄 모르구…』

한 학생이 말했다。

『원조는 부럽지 않으니 미군에게서 우리 학교나 도루 찾아 주십시오』

△ 『충 고』

『국회』가 휴회하는 동안 목포에 갔다 오다가 호위병과 함께 테로를 당한 『민주당』 소속 『국회』 의원 류 옥우는 이 문제를 『국회』에 제기하였다。

그러나『자유당』 소속 『국회』 의원들은 그것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의한 소행이라고 하며 이 문제의 해명을 극력 거부하려 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퀴를 짓지 못하고 휴회하였다。

그런데 류 옥우 의원이 휴계실로 나오는데 한 『자유당』 소속 의원이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여보시오 목숨이 붙어난 것도 다행인줄 아시구 가만이 있소』

△ 법 밖에 선 사람들

경북 영천읍 호당동에 사는 김 치국 농민은 논에서 가을하다가 사냥 나온 미군의 렵총에 맞아 오른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다。

김 치국 농민은 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서에서는 『미군이 범한 범죄는 우리가 취급할 수 없소』 하고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 그 농민은 성이 꼭두에 까지 올라 그 미군이 소속한 부대에 찾아갔다。

치국 농민의 항의를 받은 장교는 부대로 들어갔다가 한참 후에 되돌아 나와 답변했다。

『그 사람은 꿩인줄 잘못 알고 쐈소』

그리고는 그 사람을 열흘동안 영창에 걷어 넣겠노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치국 농민이 보니 영창에 걷어넣겠다던 그 범인은 네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 얼굴 빛

대구 근방 동촌에 있는 미군 비행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최 승호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였고 미군들의 비위를 마춰 주었다。 그래서 승호는 자기들을 일 시키는 미군 존슨과 아주 친해졌다。

『당신 일 참 잘 하오, 수고했소, 참 조선 사람 미국사람 친형제와 마찬가지요』

존슨은 승호를 연신 칭찬하였다。

헌데 승호가 그곳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을 보자 존슨은 노발대발하여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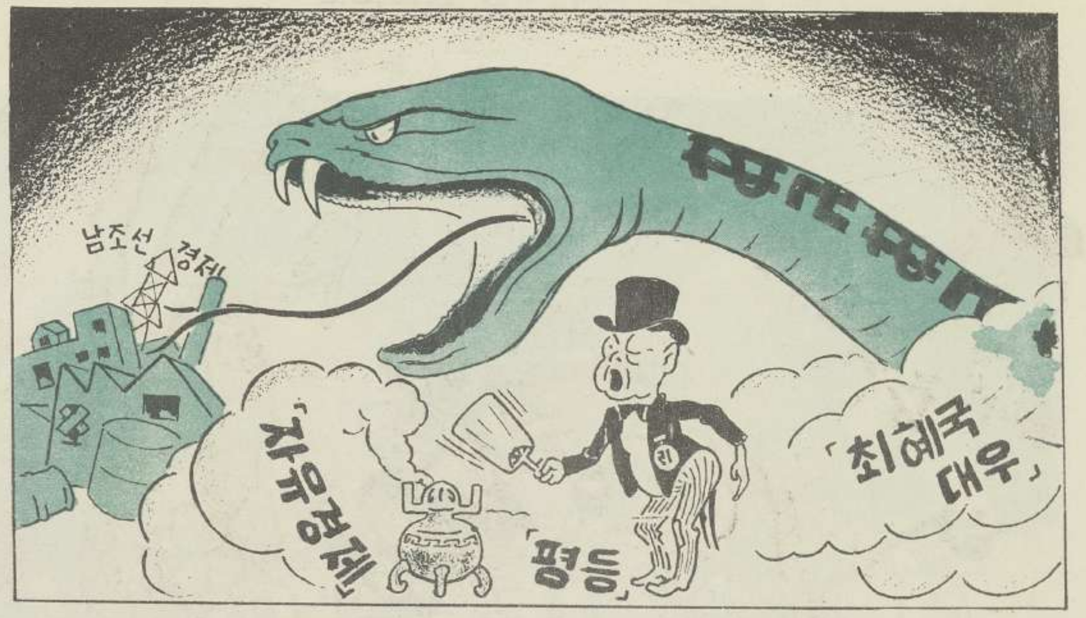
『당신 어디서 식사하는거야?! 응』

존슨은 달려들어와 승호의 밥그릇을 밖에다 내동댕이쳤다。 승호가 말했다。

『아까 당신은 우리들을 친형제와 갈다구 하지 않았습니까?』

『갈다구? 당신 얼굴빛과 내 얼굴빛이 같은가?』

연막 뒤에서



소위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에 자유 경제니 최혜국 대우니 하는 연기 같은 구절을 집어 넣은것은 미제가 남조선 경제를 통채로 삼키기 위한 것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치외법권을 행사함으로써 무고한 백성들을 마음대로 구타 략탈, 학살하는 것을 조약으로 보장 받았다。

범죄자에게는 붕대를 감고

피해자에게는 포승을 감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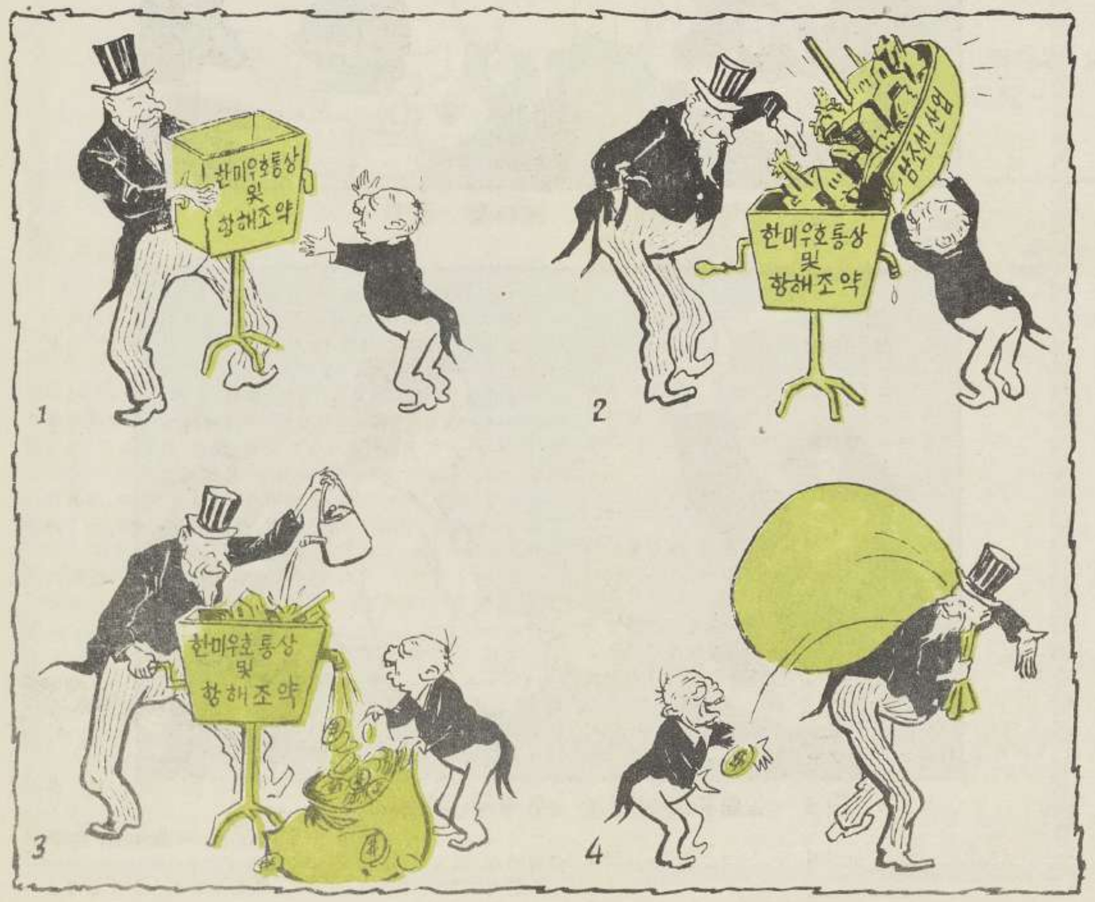
최영근 그림

리 승만의 추곡 매상 중간보고

매상 독려반—각하! 당신이 하라는 짓은 다 했습니다

백인균 그림

리 승만 도당은 략탈적 추곡 『매상』을 위하여 독려반과 테로단까지 동원하였으나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11월 10일 현재 겨우 계획의 0.9%밖에 략탈하지 못하였다.



안창수 그림

서울거리의 년말풍경

최 재 흠

거지에게 체면이 있다!

여기는 남대문 지하시장의 한모퉁이다.

콩나물장사 두부장사 담배장사 빈대떡장사 이렇게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이 빈민 시장에도 어느듯 해는 저물어간다. 순경 하나가 위엄을 떨치며 나타나더니 어슬렁 어슬렁 빈대떡장사한테로 걸어 갔다.

순경—할멈! 왜 그렇게 슬금슬금곁눈질이야?

로파—아, 아무것두 아니예유!

순경—죄진일 없이야 왜 보나말야? 영감은 뭘해먹어?

로파—로무사단에 나가 안계세유!

순경—아들은 뭘해?

로파—큰것은 국군에 나갔다가 병신이 돼 들어왔세유!

순경—또 있지? 또하나 있는건 국군 기피자지?

로파—아 아니야유! 전쟁때 죽었세유!

순경…음 아무래두 좀 수상한데?…

때마침 금방 익어서 부풀려 올으는 빈대떡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순경의 식욕을 진드려 놓았다.

순경—흥 거 먹음직한데! 저까락 인내놔!

순경은 보기에도 게걸스럽게 집어먹기 시작했다. 이윽고 배불으게 잔뜩 먹고난 순경은 게트름을 하면서 발'길을 돌리려고 한다.

로파—나리 잡숫군 돈을 안내구 가시면 어떡해유?

순경—돈?

로파—며칠 안남은 정월인데 집에선 어린것들이 굶어죽어유!

순경—누가 그런사정 물었어?

로파—나으리 이러단 정말 밑천까지 떨어저유! 무리주검이 나유, 다는 못내시드라두 다문 얼마간……

순경—시끄러워—작은아들은 어따 감췄어? 지금 년말 대수색주간이란 걸 알지? 공연스레 감춰놓구 안내놓면 할멈이구 뭐구 다 잡어 가둘테야!

순경은 유유히 이새를 쑤시며 사라진다. 거지아이가 울고 있는 로파에게 가까이 온다.

아이—할머니 빈대떡 하나 주세요.

거지아이는 지전 한장을 내밀었다.

지나가든 사람이 중얼거린다.

『흥! 거지에게두 체면이 있는데……』

기는놈 우에 나는놈

오구 잡탕, 수많은 세금을 이루다 당해 내지 못한 탓으로 간판을 떼우고 폐업을 당한 상점주인 김은 오래간만에 가게방을 차리기에 분주하다.

김—여보 물깜하구 붓을 가져오, 년말 년시 대판매월간이라구 써 붙여야겠소.

처—인젠 정말 가게방을 채려두 괜찮단 말이죠?

김—사바사바면 만사 대통이란걸 몰랐소? 그 놈팽이 과장놈을 구워 삶아서 세무국장한테 일금 10만환을 맥여 놨단말이야!

김의 말은 집달리의 출현으로 끊어지고 말았다. 집달리는 물건 들이며 진열장에 모주리 딱지를 붙이고 돌아간다.

김—여 여보 대체 이게 웬 일이요?

집 달리—차압이요! 차압!

집달리는 나중엔 건물에까지 딱지를 붙이고야 말았다.

대성통곡을 하는 그의 처와 아연실색한 김!

그런데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섰는 두 신사가 있었으니 세무국장님과 과장님이 였다!

국장—흥 싸지 싸! 다른 때두 아니구 섯달에 정월이 래모레데 인사채림 이라는게 겨우 2만환이 뭐야!

과장—그러기에 말입니다. 저것들은 인색하기가 짝이 없습죠!

국장—인제라두 늦지않을테니깐 군이 한번 다시 찾아가 보게!

국장님은 유유히 사라지고 과장은 일부러 헐레벌떡하며 가게 방에 나타났다.

과장—여보 김서방 국장은 이럭저럭 삶아놨는데 이번엔 재판소에서 말썽이거든! 사바사바가 좀 더—있어야겠어 한 돈 10만환 말이야!

그러나 그땐 벌써 김서방은 파산을 당했으니 10만환이란 대금을 구해낼 도리가 없었다. 한해도 저물어가는 서울 거리엔 김서방 부부의 울음소리가 처량한데 바람따라 싸늘하다!

목욕탕에도 계급

섯달두 다 가면서 목욕탕이 혼잡을 이루게 되는것은 역시 서울도 마찬가지다.

원래 목욕탕 속에선 빈, 부 귀 천의 차별을 모르는게 상례이다. 그런데 여기 어떤 비대한 몸집을 한 부인 하나가 목욕탕에 들어서면서 소리를 질렀다.

『저리 비켜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려는데 뵈지를 않는가봐?』 누구나 다 들은체 만체.

『에이 더러워! 이거야 어디 들어갈수 있을라구…? 좀 나와요!』

모두를 아니꼽게 바라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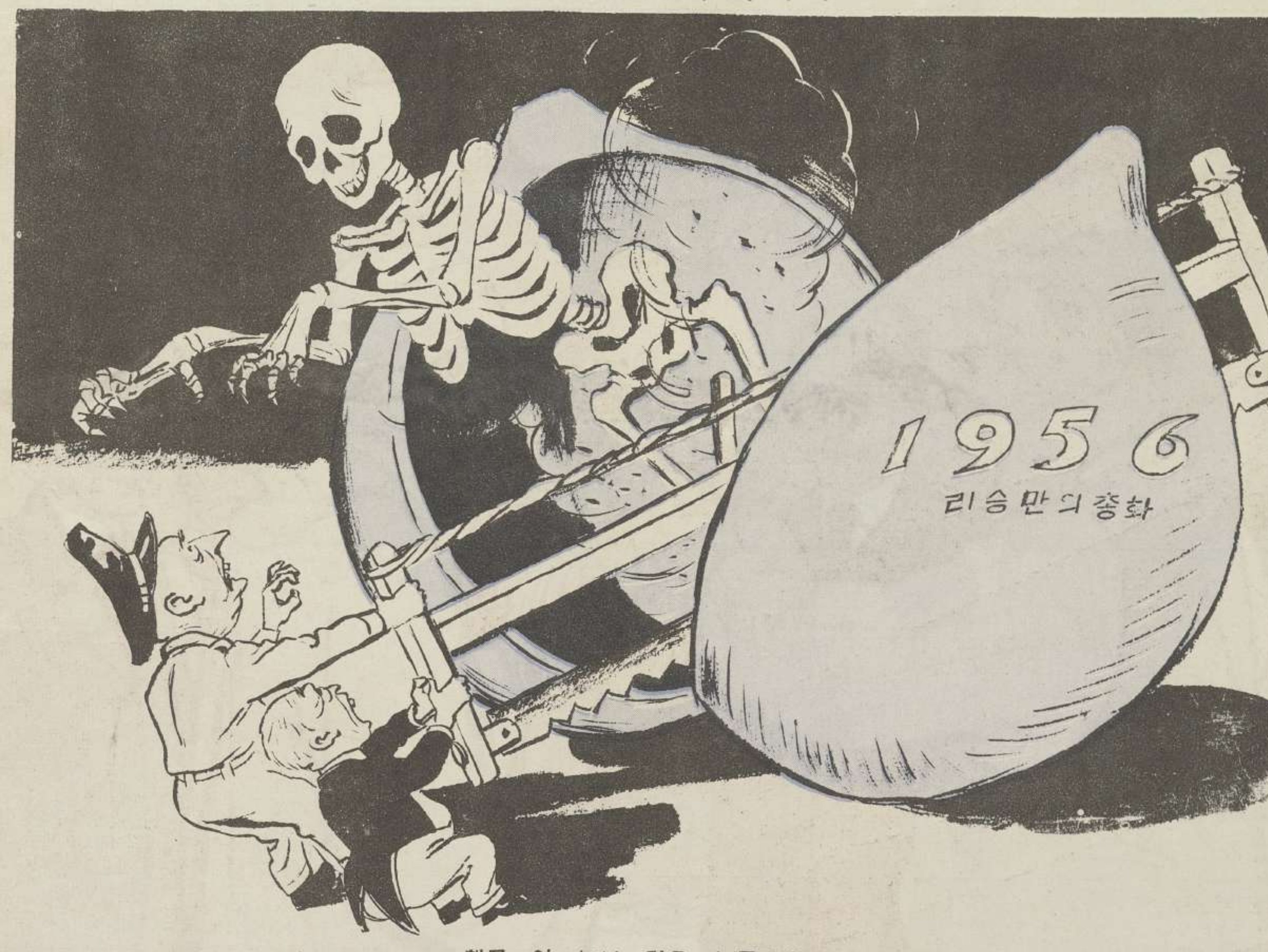
『아니 내 말이 들리지 않소? 사람이 뭐라구 하면 움젓이라두 해야지?』

벌거 벗은 알몸뚱이로 위풍을 떠는 꼴이 하두 우수워 이곳 저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약이 오른 비대한 부인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휭—하게 밖으로 나가드니 다시 뛰여들었다 목욕탕에 있던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어 잠시 말을 못하고 바라볼 뿐

『아—니 이래두 내가 누군지 모르겠단말이야?』

그제서야 아까보다 더 요란한 웃음소리가 목욕탕에 넘쳐났으니 보라! 비대한 그부인의 차림세를…금테안경에 금목거리를 걸었고 금반지 낀 손가락을 보라는 듯이 번쩍거리는 괴물이 아닌가? 그 이튿날부터 목욕탕엔 심지어 보석목거리까지 하고 들어오는 부인들이 늘어 갔으니 그 괴물들의 신분을 조사해 보면 대개가 경찰관, 형사들의 부인이고 또는 양공주(洋公主) 같은 족속들이라 한다. 목욕탕의 계급도 세말의 서울이 빚어내는 한토막 이야기라고만 볼 수 있을까?

리 승만의 박타기



해끌—이 놀부 같은 놈들아!
너희들은 그만 저승으로 잡아가야겠다

박승히 그림

미국식 자유

신 흥 순

괴뢰정부 법무부에 근무하시는 한 고관 나으리께서 「인권 존중과 자유보장」이란 연제로 군중들 앞에서 만강의 열변을 토했는데 강연회가 끝날 무렵 한 시민이 이렇게 물었다.

—여보십쇼 강사어른

—무슨 말요?

—오늘은 특히 「자유」에 관한 귀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대해서 좀 물어 볼 수 있는 자유를 허락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음 질문을 하겠단 말씀이지? 에—강연 끝에 질문 한다는 전 원래 상례가 아니지만 오늘은 특히 「자유」에 대해서 얘길 했으니 만치 질문의 자유를 허락하죠 뭡니까? 의문나는게?

—강사어른 말씀이 남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두 자유의 침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마땅히 법적으루 처벌을 해야겠죠?

—아무렴이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 법무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말입니다. 미군이 우리 가게에 와서 시계를 집어갔는데 그걸 좀 법으루 처단해 줄 수 없을까요? 요즘 미군의 행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하 그런건 증거가 불충분하면 곤난 한데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봤다구요?

—그러면 미군의 소속부대 이름을 압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야 요근방 부대겠죠 뭐

—그런게 곤난합니다. 남대문입납인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럼 사람을 죽인건 어떻게 되나요.

—아 거야 엄벌에 처해야죠 사형 아니면 종신징역.

—그런데 미군 찦차가 애들을 깔아 죽인 건 왜 쉬쉬하나요?

—뭐뭐뭐? 엣……사실 강연 끝에 질문받는게 아닌데……에—그건 말이야 복잡한 거리에다가 어린애들을 막 내놔서 사건을 발생시켰으니까 그건 교통규률 위반죄루 그의 부모가 마땅히 처벌을 당해야지.

—그럼 미국 비행기가 벌판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다 폭탄을 떨궈서 희생된건 누가 벌을 받아야 옳은가요?

—또 미국이야? 엥이 꽤두 씨끄럽게구네 그런일이 있긴 있었지만 그건 꼭 미국비행기라구 단정할 수가 없지.

—그건 미군 비행기루 판명이 되잖었나요.

—에—그그 그것두 비행사의 소속부대를 몰라 곤난해! 그리구 미국인에 대한 건 치외법권으로 우리 법률로써는 처리할 수 없단 말야!

—치외법권이요?

—그래 우리는 항상 「한미친선」의 정신으로 미국사람을 존경할줄 알아야해!

—네에 그래서 미군이 권총으루 막 쏴 죽인 것두 경찰에서는 고소두 안받아 주누먼요?

—옳지 인제 보니까 네놈이 빨갱이로구나! 리형사!

—넷!

—저기 저놈을 끌고 갓!

1956년을 보내면서

더욱 큰 승리를 위하여!

송용남 그림

홍종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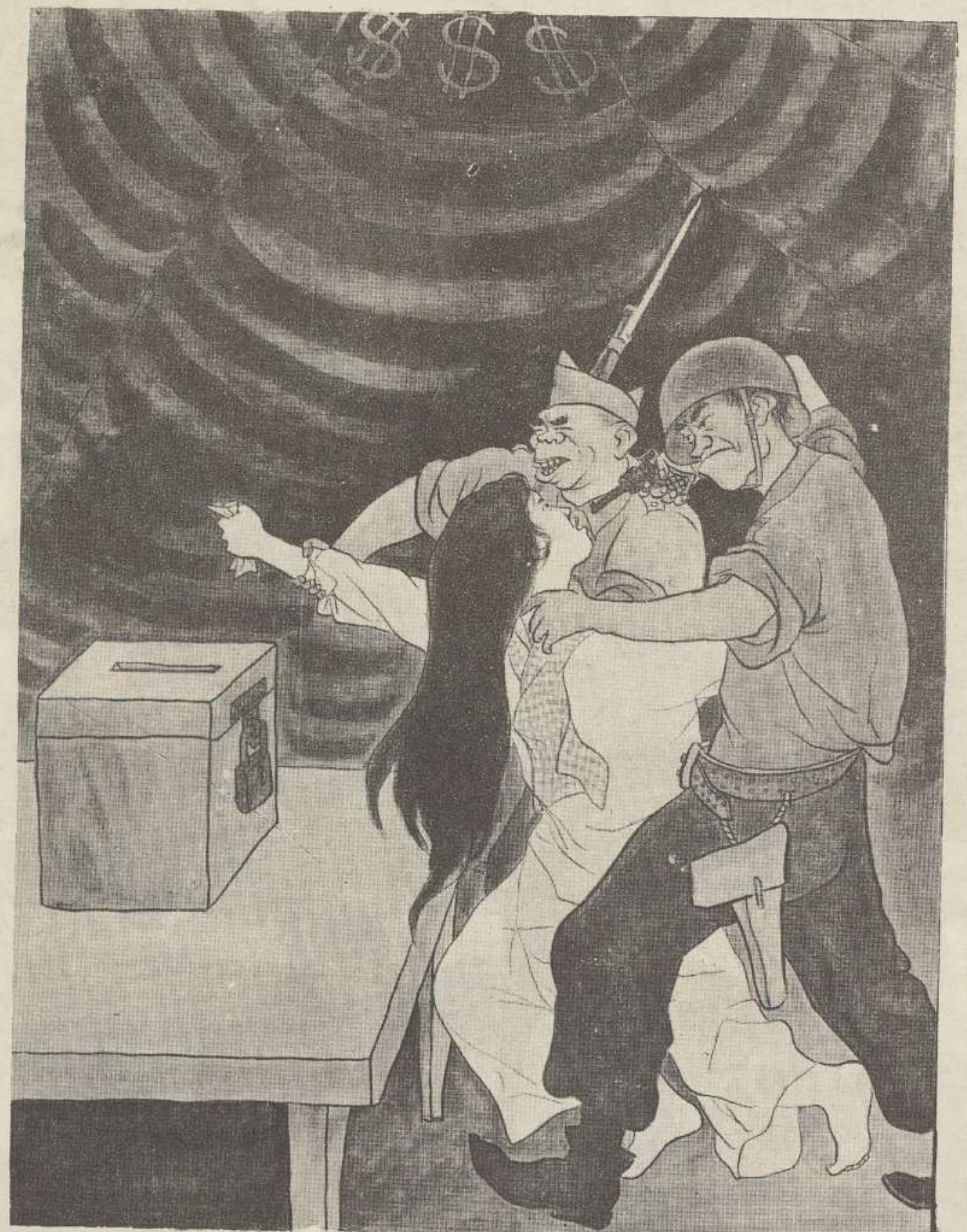
리형춘 그림

우리 마을의 년말 풍경

조선 인민과 월남 인민간의 불멸의 친선 단결 만세!

국제유모어 소개

뜨안·네 그림 (1956년)



남부 월남에서의 강제투표

느그엔 뜨호 그림 (1954년)

남부 월남의 괴뢰수상

아버지에게 희망을 주었다

독일 신문 "윤헤벨"이 전하는바에 의하면 최근에 어느 한 이태리의 대 기업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100만 리—루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이 납치 될 것이다» 불안에 싸인 부모는 경찰을 내 세웠는바 그 경찰은 요구한 100만 리—루를 가지려고 강탈자들이 반드시 나타날 그 장소에다 비밀 감시를 취하였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당장 범죄자는 적발됐다. 그런데 상술한 아버지의 II세나는 아들이 범죄자로 나타났으니……

소문이 평장해진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걱정에 싸이게 했는데 다만 기업가 자신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도리여 개가를 울렸다. 어느때인가 그의 기업소들을 믿음직한 손에 상속하게 될터이니까!

고로고질 32호에서

기뻐할 바 못된다

미국 항공 장관 꾸오루쓰는 대낮에 테레비존 방송을 통하여 연설을 하였다. 그는 군비 축소 문제에 관하여 말하면서 특히 수소 폭탄 시험에 관한 시급한 제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유·피 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때 장관에게 «질문을 막 퍼부었다» 한다.

그러나 꾸오루쓰는 완강하게 견디어냈다. 그는 용감하게 방위했을 뿐아니라 자신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원자 수소 무기 시험의 금지는 «전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곧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 방송 청취자들은 장관에게 우박처럼 질문들을 퍼 부었다. 그들은 장관이 정신이 나가지 않을는지 하고 확실히 흥미를 가졌다. 이에 대답하여 장관은 성명하였다 «믿을 수 없는 군비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의미 심장한 항공 장관의 연설은 테레비존 관중들을 어떤 슬픈 생각에로 끌고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명백하다. 즉 만일 고관들이 군비 경쟁을 정당화 하려는 자기들의 시도에서 초보적인 론리까지 잊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물론 기뻐할 일은 조금도 없다.

고로고질 31호에서

(한 동 신 번역)

침략자들의 무덤

뜨 안·네 그 림 (1954년)

부모들이 서로 다른 애기의 탄생일에

뜨 안·베 그 림 (1956년)

문서 주의자의 총화

없었던 련계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원광수 그림

일부 일'군들은 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문서만 란발함으로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첫 눈에

브·레드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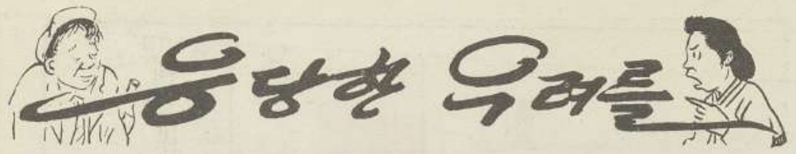
그는 녀자의 손을 잡고
한숨 지으며 속삭였다。
—날씨는 매우 좋은데…
오늘은 산보하기가 얼마나 좋겠소!
그리곤 입맞추려 하였다。
—싫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인데…
—나는 첫 눈에 당신한테 반했소!
오, 귀여운 지—나!
—내 이름은 또—마야요…
—오 또—마!그는 고쳐 말했다。
그들을 놀래우지 않으려고
달은 여태 구름 속에 숨었다。
사랑에 빠진 사나이는 중얼댄다
«류—바 나는 당신을 위해 그 무엇이건 다 하겠소
하늘을 풀어 당신의 목수건을 만들고
별로 구슬을 엮어
당신의 가슴에 걸어 주고
당신의 발 밑에 은하수로
길이라도 깔겠소
그 녀자는 농을 즐겼다。
« 보건대 총각이 나쁘지는 않지요…»
첫 눈에 반했다는 사나이에게
처녀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진 않았다。
그 녀자는 중앙 공원에서 헛되이 그를 기다렸다

그는 이날 저녁에
다른 녀자에게 속삭였다
—얼마나 좋은 날씨요?
그리곤 그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오 귀여운 또—마요!
—내 이름은 제—나야요…
—오 제—나요! —그는 고쳐 말했다
나는 첫눈에 당신한데 반했소
그리곤 다음에 또다시 류창하게
시침을 뚝 따고 거짓말을 했다。
«하늘을 풀어 당신의 목수건을 만들고
별로 구슬을 엮어
당신의 가슴에 걸어주고…»
…제—나도 역시 그를 기다렸는데
그 녀자는 슬었다。
그러나 슬어한들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세번째 녀자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곤 사랑에 대하여 아름답게 속삭였다。
오 귀여운 제—나요
—내 이름은 림마야요…
오 림마요!—그는 고쳐 말했다。
림모치까, 당신을 잊을수는 없구려—

나는 첫 눈에 당신한데 반했소!
그리고 레코—드처럼 또 그말을 되풀이 했다。
—하늘을 풀어 당신의 목수건을 만들고…
그런데 순진한 림마는 기뻐하며
딱 잡아뗄 수는 없고
«필요 없어요!
하늘은 하늘대로 남아야해요!
무엇때문에 은하수에서
그무엇인가를 찾겠어요?
오히려 내가 좋은 동무라도 찾았으면…»
아마 오늘 또다시
그는 처녀에게 속삭일것이다。
—나는 첫 눈에 당신한데 반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펠레톤을 끝마치면서
나는 원하는 바이다。
이 열정적인 웅변에 대하여
그 녀자는 바로 이렇게 대답하기를
—나는 첫 눈에 알았소
내 앞에 있는 사나이는 난봉쟁이란 것을。

(한 동 신 번역)



응당한 우려를

유 항림

밤이 깊어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안해가 문은 열자, 술 냄새가 풍겨 들었다。 안해는 얼굴을 찡그렸고 뒤이여 순서에 의해서 준비되였던 나무램과 한탄과 우는 소리들을 늘여 놓았다。

『애구 술내야! 당신 혼자만 좋다구 이렇게 술이 취해 돌아오군 하면 살림 살이는 어떻게 해요, 난 몰라요 난……』

그리하여 순서에 의해서 남편의 변명이 이에 따랐다。

『그런게 아니라 오늘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두세요。 핑게 없는 무덤 없다더니 당신 술 먹고 들어와서 언제 핑게없어 본 일 있었소?』

『그런게 아니라 출장가셨던 상 동지께서 오늘 돌아오셨어 그래서 부상 동지랑 다 역으루 마중 나갔댔는데……』

그러자 김제랍 먹던 얼굴이 대번에 사탕 문 얼굴로 변하면서 물었다。

『그러세요? 그럼 부상 동지의 자동차를 함께 타구 나갔셨댔어요?』

이 부인은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서 상식적인 범위를 약간 벗어날 정도의 정열을 가지고 있다。 그러자 남편의 대답은 불행히도 부인의 이 정열에 만족을 주지 못했다。

『아니야 난 국장 동지랑 함께 뻐스루 나갔댔어……』

안해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 위안을 찾으려 했다。

『예에?! 그럼 정거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국장님과 함께 한잔 하셨구만요。 그런 경우라면 뭐 하는 수 없지요。 웃사람과 좀 가까이 사귈 기회를 만드는 거야……』

『아니야, 그런게 아니라 정거장에서 혼자 돌아오댔는데 오래간만에……』

그러자 화창한 봄빛이 떠돌던 안해의 얼굴 우로 가을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더니 입술이 뾰죽해졌다。

『내 그런줄 알았어요。 또 주정뱅이들끼리 모여서 술추념을 했구만요! 거저 술이라면! 참새가 방아'간을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지 당신은 술집 앞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이예요! 그러면서두 글쎄 정거장으로 마중 나간 게 여기 무슨 관계가 있다구 핑게를 하려구 해요。 누가 속을 줄 알아요!』

『핑게가 아니라 사실 정거장에서 돌아오다가 오래간만에 박동무를 만났어 수산물 도매 바—자에 있던 박동무 말야』

『아 그 박동무요, 가재미랑 헐값으루 주군 해서 잘 사다 먹게 해 주던 그 동무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다구 벌써 말씀하시지 않구서……』

안해의 맺혔던 마음은 한결 풀렸다。 남편의 외투를 벗겨 주면서 그때야 비로서 물었다。

『저녁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지 들여올까요?』

『그만 두우 뭐 먹고 싶지 않소』

『잘 잡수셨구만요……그런데 요즘 방어랑 우레기랑 청어랑 좋은 생선들이 많이 왔다는데 이번에두 헐값으루 좀 사다 먹도록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게 아니라……』

『또 아니애요? 그럼 박동무와 술 마셨다는 것두 거짓말이댔군요!』

『거짓말은 뭐 하러 해!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박동무가 그새 말 아니더군! 도매 바—자에 있으면서 제 맘대루 수산물을 처분하군 한 것이 문제가 돼서 말썽이 많던 끝에 요즘은 딴 직장으루 갔대나! 생각해 보니 미안하기두 하구 위안두 해 주는게 좋겠구 해서……』

『그만 두세요 그만 둬요, 그런줄 알았어요。 그러기에 어느 모에두 쓸데가 없는 주정뱅이들끼리 모여서 술 추념을 한게라구 하지 않았어요。 이러다간 살림살이를 정 말아서 할 수 없어요 그리구……』

이렇게 하여 남편이 잠들 때까지 안해의 바가지는 계속되였다。

남편이 자기네 살림살이를 망쳐먹을 념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 안해는 응당한 우려를 품고 있지만 자기가 남편을 망쳐먹을 념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응당한 자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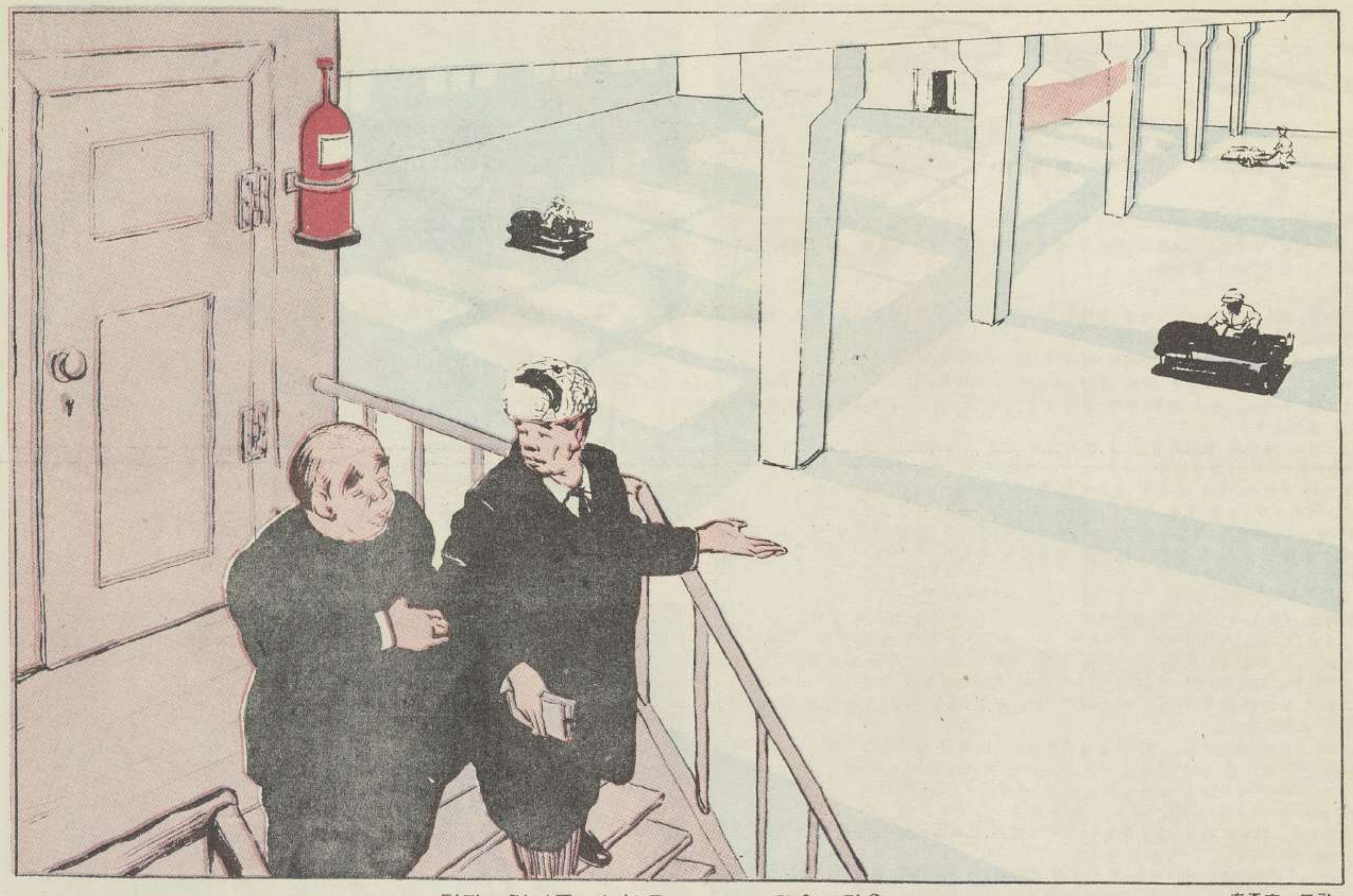
년말 페풍 몇가지

허튼 약속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말 빚을 잔뜩 걸머지는 것

바쁜김에 산판알 허투로 굴리다가 돈뭉치 흘린다

극진한 찬사에 공명이 떨치는 보고

장진광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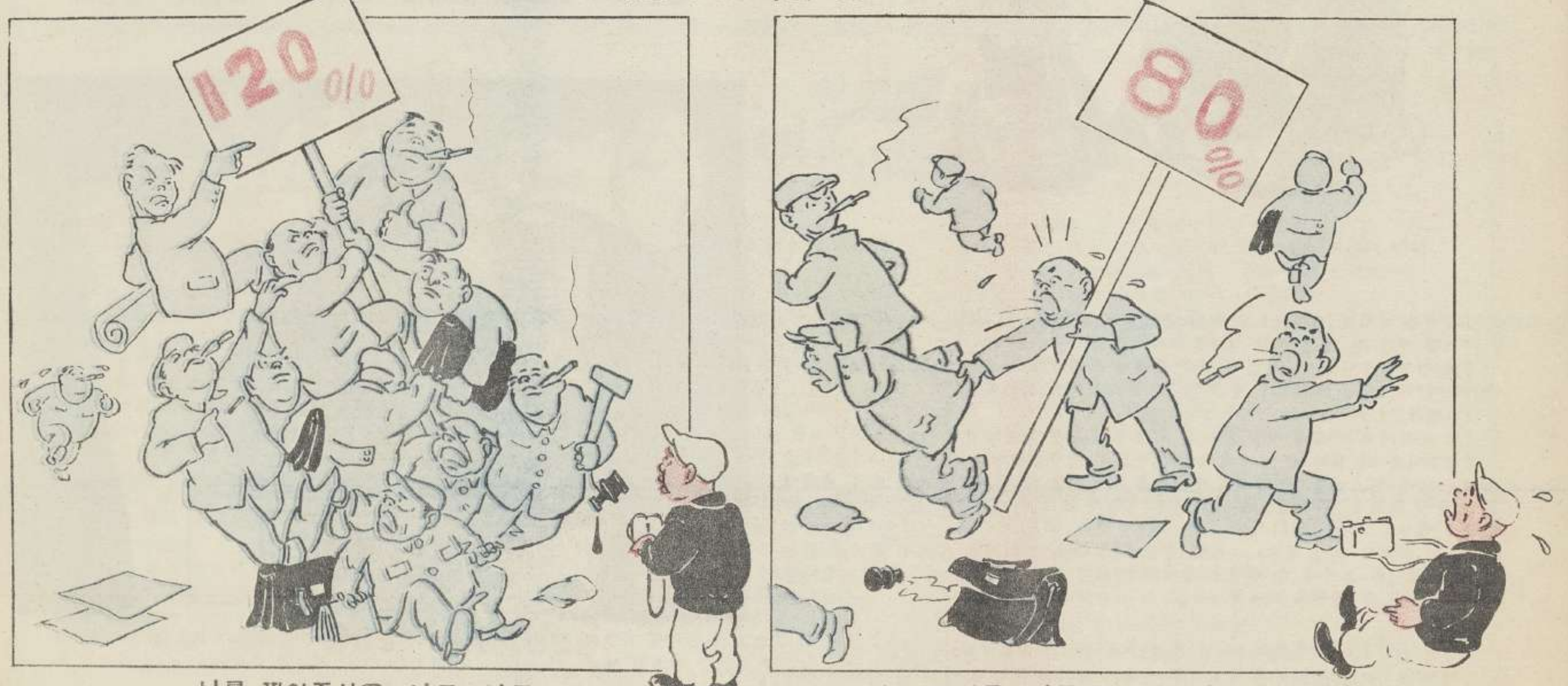


기자—기대를 더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배인—물론…집을 더 지으면 더 놓을 수 있겠지요

홍종호 그림

일부기업소 관리 일군들에게는 현존 시설을 효과 있게 리용할 대신에 기본건설만 확장하려는 경향들이 있다。

사진사도 딱할 일



—나를 찍어주시오—나도…나도…

—나는 아니요—나도 아니요…나도… 나도

최영근 그림

창발적 대책

김 구 섭

한 수직원은 생각했다네
뜬눈으로 새우기란 당치 않은것
잠 자며 수직할 것 궁리했다네

그러나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 옆에 한장 더 써 붙였다네
『수직원의 승인 없이 출입말것』

슬쩍 수화기를 내려 놓아
때때로 울려나는 전화기를
고장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반준비 갖추었건만
그래도 잠자기엔 편안치 못해
그럴듯한 대책을 또 생각했네

만약에 그 누가 찾아 올까하여
『초인종을 누르라』는
큼직한 글 한장을 붙여놓았네

아무도 승인을 받지 못하게
문 걸고 불마저 끄고 누오니
졸음은 슬머시 눈을 감긴다

그러나
뉘 하나 이 사실 알이 없어도
그대의 량심만은 눈 않감으리…

등잔밑

박 영 활

『오늘 내가 말하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전기를 절약할 데 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은 이렇게 강연을 시작했다。

리론가로 자처하는 그는 전기 절약과 관련해서 많은 리론적 문제들을 내 놓았으며 많은 서적들에서 많은 구절들을 인용했다。 그가 리론가라는 것은 이자리에서도 상당히 표시되였다。 강연은 계속되였다。

『어떤 동무들은 대낮에 집에서 불을 켜놓는가 하면 대낮에 아주 뻔뻔스럽게 사무실에다 불을 켜놓은채 사무를 보는 책임 일'군도 있습니다。 그 동무의 위신을 고려하여 여기서 누구라고 지적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합니다。 말로는 제제 잘하지만 행동은…』

그러자 장내에 웃음 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에헴 하고 기침을 한번 졌고 나서 위신을 회복해 보려 했으나 장내는 조용해 지지 않았다。 청중들이 모두 쳐다보는 곳을 따라 그도 역시 고개를 쳐들고 머리 우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는 대낮의 전등이 한 가로이 켜져 있었다。

하긴 옛날부터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으니 전등 밑도 어두웠을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책을 읽고 있었다。 무릎 우에 올라 앉은 아들은 자꾸만 물었다。 아버지는 귀찮아졌다。

『아버지의 머리털은 왜 희가요?』

『그건 네가 너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머리털이 이렇게되는거란다。』

『그럼 할아버지 머리털이 흰 건요?』

『?!……』

통대하고 있는 대감네들

유 황 림

옛날 풍자가로 이름난 정 수동이가 하루는 당시의 세도가이던 어느 재상네 사랑에 들렸던 일이 있었다。 이집 주인은 세도가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풍류객으로도 자처하고 있었다。

친지 대감들이며 문객들이 사랑에 가득히 모여 들기를 기다려 주인은 방안을 한번 뻥 둘러보고 나서 길다란 채수염을 내리 쓸며,

『어제 저녁에 달이 하두 좋기에 시 한귀를 지었는데……』

하고 운을 떼자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그 시를 들려 달라고 하는 지라, 주인은 마지 못해 하는 듯이 문갑을 열고 써 두었던 시를 꺼내 들었다。 그리하여 에헴 하고 잔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목청을 도두어 시를 읊기 시작하려 하였다。 그때 만석에 앉아 있던 정 수동이 갑자기

『거 참 훌륭합니다。 색 잘 쓰셨습니다。 리백과 두보도 비길 바가 아닙니다』하고 극구 칭찬하기 시작했다。 좌중이 모두 눈이 둥글해 지는 가운데서도 주인 대감이 더욱 어이 없어서,

『시는 아직 읊기도 전에 좋다고 하니, 참 괴이한 일이로군!』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정 수동은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대감이 시를 다 읊기만 하시면 너두 나두 앞을 다투어 찬사를 드리려고 퉁대하고 계시는 대감 어른네들이 여기 잔뜩 둘러 앉아 있으니 시읊이 끝난 뒤에야 소인에게는 칭찬의 말씀 한 마디 드릴 기회조차 없을 듯 싶습니다。그래서 미리 한마디 아뢰였을 뿐입니다』

만좌의 아첨'군들은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

손톱 곪는것만 알고 염통 곪는 줄 모른다

『구호가 못쓰게 되였는 데…』

평양 방직 공장
편직 공장 신편 직장 김두린

편집 위원 장 진 광(책임 주필) 김 선 낙
박 기 성 송 용 남
발행소 활 살 (시사 만화 잡지)사 인 쇄 1956. 12. 10. ㄱ—70894
인쇄소 미 술 인 쇄 공 장 발 행 1956. 12. 15. (값50원)

이것을 보고 그 누가 분통을 터뜨리지 않으랴!

잠진광 그림